



고3이다

## 고등학생이 한국에서 컴퓨터 보안전문가를 꿈꾸면서 생각할 것들

3417 - 박성호

### 먼저 하는 이야기

필자를 포함한 한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컴퓨터 보안 전문가로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 보안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신들의 업무에 자긍심을 가지고 계신다. 또한 직업의 특성 상 대부분 보안 업계의 분위기는 딱딱하다라는 표현이 어울리진 않는다. 오히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인터넷과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어느 분야의 학문보다 정보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해킹/보안 분야의 일반적인 지식 습득 방식이다. 다른 분야에 비해 어린 나이의 능력자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한다. 가장 큰 특징은 업무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흥미롭다는 것이다. 이런 매력적인 직업이 또 있을까.

하지만 모든 직업이 그렇듯 컴퓨터 보안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길은 험하고 힘들다. 필자는 이런 험한 길을 걷기를 자청하는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컴퓨터 보안 전문가가 되기 위해 신경 써야 할 것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다. 초짜의 입장에서 적게나마 얻은 경험을 토대로 설명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바라진 말자.

# 1

## 대학 먼저

### 시답잖은 이야기

식상한 말을 하자면 상위권 대학으로의 진학이 인생을 결정 짓지는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어느 대학을 나오든 자신의 실력을 최우선으로 존중 받고 그것으로 평가 받는다. 박찬암, 구사무엘, 홍민표 씨를 예시로 들어보겠다. 우선 이들의 경력을 위키백과를 통해 확인해보자.

#### 박찬암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2005년 당시 청소년 정보보호 페스티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2007년에는 고교생 해킹 보안 챔피언십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데프콘 CTF 해킹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제 4회 Korea Hacking Challenge, KAIST vs Postech(전 포항공대) Science War 해킹대회 등의 운영과 문제출제를 맡은 바 있으며, 리눅스 운영체제 상의 심각한 취약성에 대한 보안 패치를 발표하는 등 공익을 위한 보안에도 기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하대학교에 진학한 그는 코드게이트 국제보안컨퍼런스에서 일부 세션을 진행한 것을 포함하여, KISA 해킹방어대회에 출전하여 금상을 수상<sup>[7]</sup>하였다. 2009년에는 코드게이트 국제해킹방어대회에 CParK 이라는 팀으로 출전, 우승을 차지하였다. 또한 같은 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Hack In The Box 컨퍼런스의 최대 관심사였던 세계 해킹대회(Capture The Flag)에서 KOREA 팀으로 출전, 우승을 차지하였다.

#### 구사무엘

선린인터넷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7년, 정보통신부 주최 제4회 해킹방어대회 본선에 진출했으며, 같은 해 고교생 해킹 보안 챔피언십에서 2위

를 차지하는 등 해커로 알려졌다.

2008년 건국대학교에 진학한 후, 메이킹(mayking)이라는 팀의 구성원으로 제5회 KISA 해킹방어대회에 참가해 1위를 차지했다. 이후 조선일보 등 주요 언론에 소개되었으며, 각종 기업과 정부기관, 군 등에서 해킹 기술에 대해 강연했다. 2008년 7월에는 한 보안 관련 회사로부터 인턴십 채용 및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을 받았다.

#### 홍민표

최고.

화려한 경력에 최고의 실력을 갖춘 자들이다. 그리고 박찬암 씨는 인하대학교를, 구사무엘 씨는 건국대학교를 졸업하셨고 홍민표 씨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보보호학과 박사과정을 재학 중이다. 인하대학교와 건국대학교를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내가 그들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대학이 인생을 결정 짓지 않는다.’이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 짓는 것은 오직 본인의 노력 여하일 뿐이다.



모두가 서울대, 한양대 컴공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하하 하하하하

하지만 상위 그룹에서 끊임없이 좋은 자극을 받을 수 있고 그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이점이다. 좁디 좁은 한국의 IT 업계에서 커리어를 쌓을 때 인맥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유념하자.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것과 지금 공부해만 하는 것의 괴리에서 현실에 낙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학을 갈만한 용기가 있지 않은 이상 순응해야 될 현실이다. 쓸데없이 방황하진 말자.

결론은 한국에서 대학 진학을 통해 진로에 다가가고자 한다면 공부 잘 하던 놈들은 지금처럼만 잘하고 못하던 놈들은 더 잘해보자.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영어를 얼마나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지 이다. 위에서 언급한 커뮤니티들은 대부분 해외 커뮤니티이고 이들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 2

### 간간히 공부하기 도중에 만나는 난관들은 어떻게??

앞서 대입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지만 12 년의 교육과정 동안 대입만을 바라볼 수 없는 노릇이다. 간간히(?) 컴퓨터 공부를 학업과 병행하게 되는 것은 IT 분야에 진출하길 원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일 것이다.

필자는 굳이 보안이라는 분야에 한정 짓지 않고 어떤 것이 컴퓨터 공부에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 하려 한다.

컴퓨터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카페에 가입해서 글 올리고 댓글 달고 셀카를 업로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글링'을 통해 국내외 커뮤니티의 정보를 습득하라는 것이다.



제발 여기에 다 있으니까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고 '선검색 후질문'의 원칙을 지키자. 단, 검색 전의 고민 또한 필수

'내가 만난 난관은 내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99% 정도 믿어보자. 프로그래밍을 코딩 하던 중 만나는 컴파일 에러는 여러 메시지를 구글 검색 창에 글자 한 토시 바꾸지 않고 넣어 검색하면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좋은 곳들에서 한글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여러 공식적인 문서들은 영어로 작성되기 때문에 마냥 한글 번역을 기다리는 사람과 영어로 직접 정보를 얻는 사람의 차이는 클 수 밖에 없다

또한 컨퍼런스, 강연회는 가능하면 모두 참가해보자. 대부분이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되도록 발품을 팔아보자.

## 3

### 대외 활동? 해, 말어?

자신의 처지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 번째로 이야기 한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지만 '대외' 활동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겠다.

집에서 혼자 노트북 두들기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누군가와 보안을 주제로 무엇이든지 하면 보안 관련 대외 활동이다. 보안을 주제로 한 대외 활동으로는 강연회, 컨퍼런스, 해킹 대회, 해킹 캠프, 정보 보안 동아리 등 수도 없이 나열할 수 있다.

이런 활동들은 건문을 넓힐 절호의 기회이고 보안 분야의 여러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이기도 하다. 최신 동향의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보안 분야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가질 수 있다. 행사 주최 측에 따라서는 기념품도 챙길 수 있다. ㅎㅎ. 대외 활동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일 뿐이다. 수많은 대외 활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활동들을 통해 얻은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융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만 유의한다면 즐거운 대외 활동과 이를 통해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많이 배워가요~~

참고로 해킹 대회는 꾸준히 참가하기를 강력히 추천한다. 우선 대회를 준비하면서 그 동안 알고 있던 리버싱, 웹 해킹, 포렌식 등 많은 지식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팀을 꾸리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혹여나 수상이라도 한다면 자신의 커리어에 멋들어진 이력을 추가 시킬 수도 있다.

## 마치며

★ 성적이 甲 ★

막상 쓰다 보니 보안이라는 분야 보다는 IT 의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쓰게 되었다. 하지만 IT 분야 안에 보안이 있으니까 뭐 ㅎㅎ

결국은 모두 본인 몫이다. 그 무엇도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열심히 노력하자. IT 분야를 포함한 많은 분야들이 천재적인 재능도 중요하지만 노력에 의해서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노력 여하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

이번 기사를 쓰면서 방학 동안 공부에 손도 안대고 열심히 자기만 한 필자도 반성 꽤나 했다. 모두들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도록 하자.

지면을 할애해준 **간재흠**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간재흠의 용안